

이즈모노쿠니 후도키의 세계

이 테마 전시는 8세기 초 조정에 올리는 보고서로 편찬된 구전집 『이즈모노쿠니 후도키(出雲国風土記)』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즈모 지방의 지리와 자원, 지역의 전설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후도키(風土記)는 옛 구니(國, 고대 일본의 지방을 구분하는 행정 구역 단위)별로 편찬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존하는 것은 이즈모, 하리마, 히타치, 분고, 히젠 등 5개 구니입니다. 이 중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은 이즈모노쿠니 후도키뿐입니다.

후도키는 일반적으로 조정에서 파견된 대표자가 편찬했습니다. 그러나 이즈모노쿠니 후도키는 예외적으로 지방 영주들이 편찬을 맡았습니다. 지역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반영하여 800여 곳에 이르는 지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여러 지명에 관한 기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즈모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동식물과 풍경, 건물, 경제, 지역 관습 등도 함께 소개하고 있어 오늘날에 고대의 일상생활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즈모노쿠니 후도키』에는 지역 신화에 대한 기록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신화와 전설의 회랑에 인접한 시어터에서 상영하는 단편 영화 ‘후도키 신화’를 통해 그중 몇 가지 이야기를 소개합니다.